

대강절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OF ADVENT

주후 2021년 12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8 장 “구주 탄생하심을”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0 번 빌립보서 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John) 20:24-31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Advent Trilogy”	찬양대
설 교 Sermon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영혼이 잠잠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82 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새9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지만,

우리는 쉽게 기쁨과 감사를 빼앗겼고,

자주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으며,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전 5:16-1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한글개역 요 20:28)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NIV John 20:2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12 (주일)	12/13 (월)	12/14 (화)	12/15 (수)	12/16 (목)	12/17 (금)	12/18 (토)
	대하13	대하14,15	대하16	대하17	대하18	대하19,20	대하21
본문	계3	계4	계5	계6	계7	계8	계9
	학1	학2	숙1	숙2	숙3	숙4	숙5
	요2	요3	요4	요5	요6	요7	요8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15 오후7:30)	“요담이 소리 높여 외쳐 이르되” (삿9:7-21)
토요 새벽기도회 (12/18 오전6:30)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시64:1-10)

지난 주일(12/5)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2) – “주는 그리스도시요”(마 16:13-20)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고백에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 안에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요약하면) 1)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그리스도(the Christ)이시고, 2)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구별되어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the Anointed One)이며, 또한 3)예수님은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으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Creed/Credo)은 (마치) 우리의 심장을 꺼내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아내야 하는 것이기에, (또한)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의미이기에, 더 이상은 (막연히)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오직 그분을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